

농촌체험마을의 지원시책

Policy Strategies for Fostering Rural Green Tourist Village

전 영 미*
Jeon, Yeong Mi

1. 머리말

농촌체험관광정책은 마을단위 체험마을조성 사업을 지원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당시의 배경으로는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교통망 확충, 노령연금의 정착 등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따른 도시민의 여행패턴도 유명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 등으로 변화될 것이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수요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어 향후 농촌체험관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인구감소, 고령화, 도·농간 소득격차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농촌의 기능과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02년부터 농촌지역 활력 증진 및 소득 증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등을 위해 마을단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시작하였다.

상향식 지역개발방식으로 도입된 동 사업은 5년간 진행되면서 이제 기틀을 잡기 시작했고, 그간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업으로 평가

되고 있다. 또한 농촌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도시민에게 농촌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바꿔가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농촌을 이끌어가고 이들과 교류하는 사람에 중점을 두어 농촌측에는 주민 및 공무원 등 인력양성과 제도적인 지원을, 도시측에는 도시민 방문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시책과 관련하여 체험마을을 이끌어갈 인력의 양성,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통한 기반확충,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관해 포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농촌체험마을의 지원전략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하고,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이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촌지역공동체의 형성 및

* 농림부 농촌진흥과 토목사무관(ymjeon@maf.go.kr)

목적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 구현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마을을 주도해 나갈 농촌지역의 인적역량 강화 ▶ 농촌 체험·휴양 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개 ▶ 농촌체험마을의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 ▶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근거 마련

그림 1. 농촌체험마을의 지원방향

복원에 기여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농촌체험마을의 지원방향은 도농교류활성화를 통해 농촌체험마을은 소득증대 및 활력증진의 계기를 마련하고, 도시민은 건전한 여가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받는 등 도·농상생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인적역량 강화, 체험·휴양기반의 확충, 다양한 홍보·마케팅,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 제도적 근거 마련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그림 1).

3. 농촌체험마을의 지원내용

가. 농촌체험관광 등 지역개발 인적역량강화

1)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농업중심의 인력구조와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촌체험관광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인력육성 중장기 대책을 수립('05.4)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체험관광 및 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과정은 마을리더, 참여주민, 사무장, 공무원,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동기화과정, 리더십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등으로 구분하여 '06년

에는 21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2,262명이 교육을 받았다. 구체적인 교육과정별 세부과정은 표 1과 같다.

농업인, 여성, 귀농자 등 지역주민의 농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주민의 의식전환 및 마을공동사업추진에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동기화 교육과정, 리더로서 종합적인 역량배양을 위한 리더십과정,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체험마을사업,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등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기타 전원생활에 관심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전원생활체험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2)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마을사무장 제도는 농촌체험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 대표 등의 업무 부담 경감 및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농산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1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한시적(최대 3년간)으로 마을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채용된 마을사무장은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사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1인당 월 100만원(국고 50%, 지방비 40%, 마을자부담10%)의 비용¹⁾을 받고 있다. '07년도에는 신규로 50개의 마을을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150개 마을에 사무장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무장 제도를 통해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민의 농촌정주 유도의 가능성을 부여²⁾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마을사무장의 업무활동에 대해 주민의 89.7%가 만족하고

1) 지역별 형편에 따라 지방비 및 마을자부담 지급비율은 조정시행 가능함
 2) 15개 마을(전체 100개)에서 2000년 이후 귀촌한 도시민이 마을사무장으로 활동 중

있으며, 지원효과로는 체험마을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94.5%, 마을대표의 업무부담 경감 및 마을의 인력부족 보완이 93.5%로 나타났다³⁾.

3) 주민참여형 농촌마을가꾸기 교재발간

상향식 지역개발과 관련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서 어떻게 마을을 가꿔나가야 하는지 적절한 교육용 교재는 물론 내용도 찾기가 쉽지 않아서 교재를 집필하였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을 가꾸기 위한 내용을 담은 '주민참여형 농촌마을가꾸기 1' 교재를 발간하여 관계기관, 지자체, 마을에 배포('06. 4. 2천부)하였다. 교재에는 주민참여형 농촌마을가꾸기의 의미와 실천전략 등을 담았으며, 농산물 등의 브랜드 개발 및 디자인, 마을 알리기 기획 및 마케팅 기법,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과 전자상

거래, 마을의 체험관광 운영 및 소득분배구조 등의 재무 운영 및 관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였다. 다음 시리즈인 '주민참여형 농촌마을가꾸기 2'에는 마을경영, 주민간의 화합·갈등, 서비스 등을 주제로 한 내용으로 집필중이며 '07년 초에 배포할 예정이다.

4) 교육수료자 사후관리방안 등

농촌체험관광 등 지역개발 전문교육을 통해 육성된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규정('05. 11)을 마련하여 교육 수료자에 대한 교육학점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획득학점 등에 따라 교육수료자를 초급리더, 중급리더, 핵심리더 3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핵심리더를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추진성과 등을 검토·평가

표 1. 농촌체험관광 및 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프로그램 등

과정구분	세부과정	비고
동기화 과정	1. 동기화 과정	지역별 순회교육(9개도)
리더십 과정	2. 자기혁신 및 리더십 개발 3. 농촌발전의 이해 4. 우리지역의 가치발견과 미래비전구성 5. 기획력 개발 6. 조직력 개발 및 파트너십 7. 지역경영의 이해 및 지역가꾸기	6단계 과정으로 6개월간 실시 (2개반 운영)
사업주제별 특화 과정	8. 마을사무장 과정 9. 홍보·마케팅 10. 체험활동 및 마을해설가이드 과정 11. 쾌적한 농촌지역 개발 12. 농촌민박 경영 13. 지역자원 발굴 14. 갈등관리기법 15. 향토자원의 개발 및 차별화 16. 마을경영관리기법 17. 국내견학 18. 국외견학 19. 농촌마을종합개발 과정	2개반 운영
기 타	20. 도시민 전원생활체험 과정 21. 교육강사 워크숍	

3) 사무장채용을 지원한 100개 마을의 주민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임('06. 6월, 행정조사)

하여 농촌마을 CEO로 선정한다. 농촌마을 CEO로 인증 받게 되면 교육강사 참여, 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며 국외 견학, 농촌지역개발사업 대상지역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수료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학적관리 및 인재뱅크시스템을 구축(06)하여 농어촌종합정보포털사이트(www.nongchon.or.kr/beuse)에 연계시켜 '07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학적관리로는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의 교육이수내용, 학점이수상황 등 학적 관리 및 교육정보, 사이버 교육, 커뮤니티 기능 제공 등을 지원하고, 인재뱅크 시스템은 농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DB를 구축하여, 지자체, 지역주민 등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검색 및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나. 농촌체험·휴양기반의 지속적인 확충

1)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 사업은 '02년~'16년까지 850개소를 목표



그림 2. 학적관리 및 인재뱅크 시스템의 구축 예

로 '05년까지 123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06년 67개 마을을 조성 중이며, '07년에는 신규로 84개 마을을 계획할 예정이다. '05년부터 균특회계사업으로 변경되어 참여주민의 수요와 지자체의 의지에 부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사업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마을을 이끌어가는 주민들의 의지와 역량, 협력이 중요한 만큼 사업추진시 준비되지 않은 마을이 선정되어 체험마을사업 운영이 원활치 않을 경우 사업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업시작 전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추진체계에 사전준비 절차를 포함시켰다. 또한 '07년부터는 마을공동사업인 만큼 마을주민의 과반수이상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역량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병행하면서 역량이 강화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2)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지원

체험마을을 찾는 도시민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체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마을단위 보험 상품이 필요하였으나 마을이 주체가 되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서 '05년도에 마을단체보험 상품을 마련하여 20개 마을이 가입하였었다. 이러한 보험은 농산어촌체험관광을 실시하는 마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방문여건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도시민과의 상호 신뢰구축 효과를 높이고, 농어촌체험마을 주민들의 사고발생 우려에 대한 불안감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06년부터 농산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 연간보험료 200만원기준으로 마을당 1회에 한하여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하고 있으며(국고 50%, 마을자부담 50%), 현재 65개 마을이 가입한 상태이다.

다. 농촌체험관광의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개

1) 도농교류페스티벌 개최

동 페스티벌의 목적은 농산어촌체험 및 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를 위해 농산어촌 체험마을, 지역의 브랜드·특산품·문화·축제·자원·투자 정보 등을 도시민에게 알리고, 도시와 농촌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도·농 교류의 촉진과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도시측에는 농촌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사회적 붐을 조성하고, 농촌측에는 주민 스스로 타 마을과 차별화된 농산어촌체험 콘텐츠 발굴 및 정보교환,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역량과 마을 자생력을 증진시키는 영향이 있다. 본 행사는 격년 주기로 '05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제2회는 '07년 5.3(목)~6(일), 4일간 서울무역전시장(SETEC, 지하철3호선 학여울역)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존 박람회와 농산물판매, 농기계, 농업기술과 관련된 전시 위주로 농업에 중점을 둔 전시였다면 본 박람회는 도시와 농촌의 교류라는 큰 틀에서 도시민에게 농촌을 알리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서 농촌을 알리는 행사라고 볼 수 있다.

2)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름휴가, 농산어촌

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은 휴가철(7~8월) 집중홍보를 통해 사회적 붐조성 및 새로운 여가문화의 정착계기를 마련하고, 비휴가철에도 다양한 도농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홍보하여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농림부·해양수산부 공동 주관하에 관계기관과 함께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국민 메시지 전달 및 캠페인 발대식, 도시민에게 농산어촌관광·휴양정보 제공 및 콜센터 운영, 수요창출을 위해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을 추진한 바 있으며, '06년 여름휴가 캠페인 후 전년 동기 대비 방문객 수가 23.7% 증가하였다.

3)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개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는 농촌체험 우수마을을 선정·포상⁴⁾하여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5회째 운영되고 있는 본 대회는 앞으로도 우수마을을 발굴함으로써 농촌체험관광의 품질을 제고하고 농촌체험관광이 보다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차원에서 체험마을에 국한하지 않고 마을의 자연경관, 마을가꾸기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평가하여 시상하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라. 농촌체험마을의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형성

1) 1인1촌 전문가 자문지원시스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마을

4) '02년 제1회 대회부터 '05년 제4회까지 매년 대상(1), 우수상(2), 장려상(8) 등 41개 마을을 선정·시상

스스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사후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체계는 표 2와 같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중 전문가의 도움을 희망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컨설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정된 마을에 대해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전문가는 현장방문, 전화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갈등 중재, 주민교육 등 농촌마을 요청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활동을 수행(월30만원의 활동비 지원)하고 있으며, '05년 40개 마을에서 '06년 50개 마을을 지원해주고 추가로 3개 마을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종합컨설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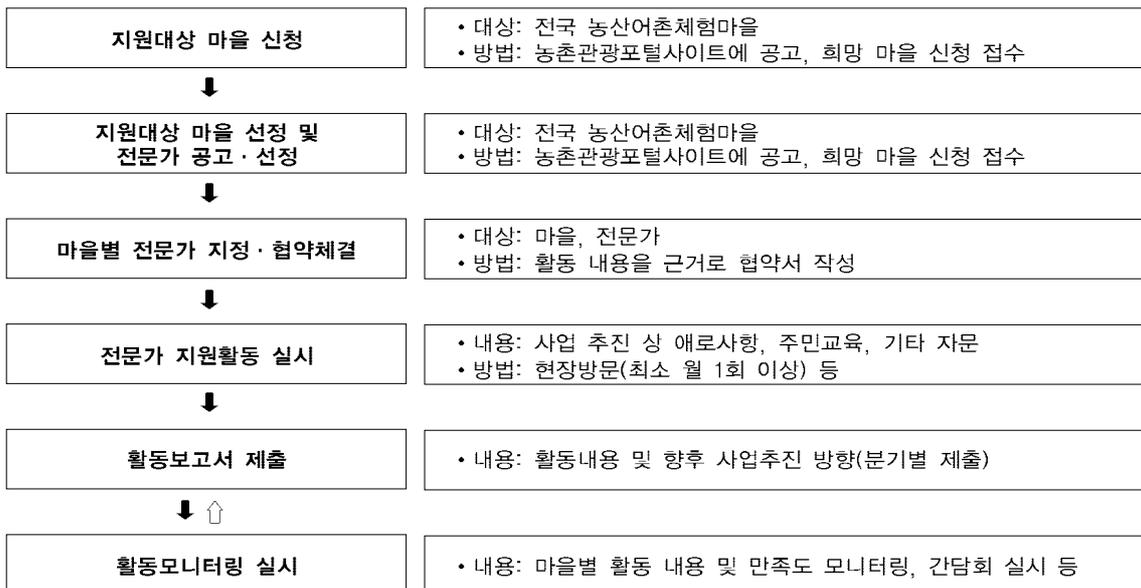
2) 녹색농촌체험마을 연찬회 및 평가회

그간 조성된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향후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05년 말에 자체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제도 개선점, 사후지원 및 관리방향을 모색하고, 지역별로 마을 대표자, 담당 공무원, 관련 전문가들과의 토의를 통해 사업추진에 관한 의견 교환 및 상호교류의 장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마을의 추진상황 및 시·도별 지원내용 점검, 사업의 성과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추진 프로세스에 대한 점검 및 보완, 모든 개별 마을의 운영에 대한 심층평가 및 문제점 등의 논의는 부족하였다. 이에 연말에는 연찬회를 통해 주민과 공무원들간의 의견교환 및 상호교류의 장을 갖고, 평가회의 경우 지원년도 또는 지역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사례를 분석하여 운영이 미흡한 마을에 대해 사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3)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표 2. 1인1촌 전문가 자문지원시스템 추진체계



농산어촌체험마을과 관련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하는 사업이 생김에 따라 중복지원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체험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단위에서 관계부처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부처의 사업을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⁵⁾이라 칭하고 사업통합지침을 마련('04.11)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침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의 역할, 공동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간 연계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각 사업의 추진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실무협의회는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과장 또는 팀장을 위원으로 5회째 운영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05.4),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 및 공동 개선방안 마련, 공동 홍보 및 마케팅 추진, 중복지원 등을 방지하고 있다.

마.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근거 마련

농촌체험마을에서 체험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즉석 제조된 음식물 제공, 마을공동시설을 활용한 공동민박 운영 등의 제도적 지원을 위해 '(가칭)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07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촌체험관광과 1사1촌운동 등 도농교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도농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근거와 마을의 육성 및

지원, 도농교류 활동 및 농촌체험교육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것들을 담고 있다.

현재 폐교재산은 교육·복지시설로 활용될 경우에만 수익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하고, 대부로 또한 감면되어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매각이나 대부로 감면 혜택이 없다. 점차 농촌체험마을에서 폐교를 활용하여 체험관, 공동민박 등 주민공동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으나 매각이 어려워 주민이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에 폐교재산을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사용료 감액 및 대부, 일정 경우 무상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의견을 폐교재산활용촉진법 개정(안)에 반영시켰다(국회 계류 중).

4. 맺는말

상향식 지역개발방식이 도입되면서 주민을 비롯하여 지자체나 정부는 이제야 마을과 지역 가꾸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그 동안 주민들 스스로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을 어떻게 계획하여 가꾸어야할지 직접 참여한 적도 없었으며, 그러한 연습을 해 본 적도 거의 없었다고 본다. 마을주민들에게는 과거 계획이나 사업을 주도해가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주는 대로 따라가면서 필요할 때 의견만 제시하는 정도에서 이제 직접 마을을 가꿔야 하는 주인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가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본다.

5)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은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행자부의 아름마을가꾸기, 해수부의 어촌체험마을, 농진청의 전통테마마을, 산림청의 산촌개발개발(산촌체험사업의 경우에 한함)을 말함. 체험마을사업과 연계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행자부의 정보화마을이 있으며, 문화관광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촌공사,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읍저버로 참여하고 있음 .

그간의 성과라면 사람이 경쟁력 요소의 핵심에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으며, 체험마을 내 대표와 주민들의 역량이 체험마을 운영 전에 비해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마을을 포함하여 서서히 주변 지역까지 변해가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적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체험기반구축, 홍보·마케팅, 사후관리 및 네트워크 구성, 제도적 개선 등의 결과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07년도에는 주민의 역량에 기초하여 수준별 교육내용과 방법 등을 달리 적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촌은 살고 있는 농촌주민만이 아니라 도시민, 전문가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마을 가꾸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오고 싶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인 것 같다.

참고문헌

1. 농림부, 2005, 중장기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
2. 농림부, 2006,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시책방향.
3. 농림부, 2006, '07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추진방안.
4. 농림부, 2006, '07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시행지침.